

금속 깎더니 이젠 쌓는다… DN솔루션즈 ‘적층 제조’ 진출

DN솔루션즈 공작기계 전시회

2~5일 벡스코서 25회 행사
글로벌 3위 기업 기술력 선배
재료 쌓아 만드는 신기종 공개
작업 효율 보장 자동화 공정도

“전통적인 공작기계 산업을 넘어 오토 메이선 플랫폼이나 적층 제조 장비처럼 공정 전반을 혁신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겠습니다.”

지난 2일 벡스코에서 개막한 DN솔루션즈 자체 국제 공작기계 전시회 DIMF (DN Solutions International Machine tool Fair·이하 딥프)에서 김원종 DN솔루션즈 대표가 밝힌 포부다. 딥프는 DN솔루션즈가 2년에 한 번씩 여는 전시회로 5일까지 벡스코에서 열린다. 공작기계란 각종 기계를 만드는 기계로 ‘마더 머신’이라고도 불리며 정밀한 기술력이 요구된다.

■글로벌 3위, 국내 1위

딥프는 1997년 처음 시작했다. DN솔루션즈(당시 대우중공업)가 처음 26개의 제품을 만들었을 때다. 당시 DN솔루

션즈는 해외에서 보면 크게 이름 있는 기업이 아니었기에 해외 바이어를 초대해 기계를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다. 딥프는 23회까지는 창원 본사에 있는 공장

에서 진행을 했다. 하지만 규모가 커지자 24회부터는 벡스코에서 진행하고 있고 올해 역시 벡스코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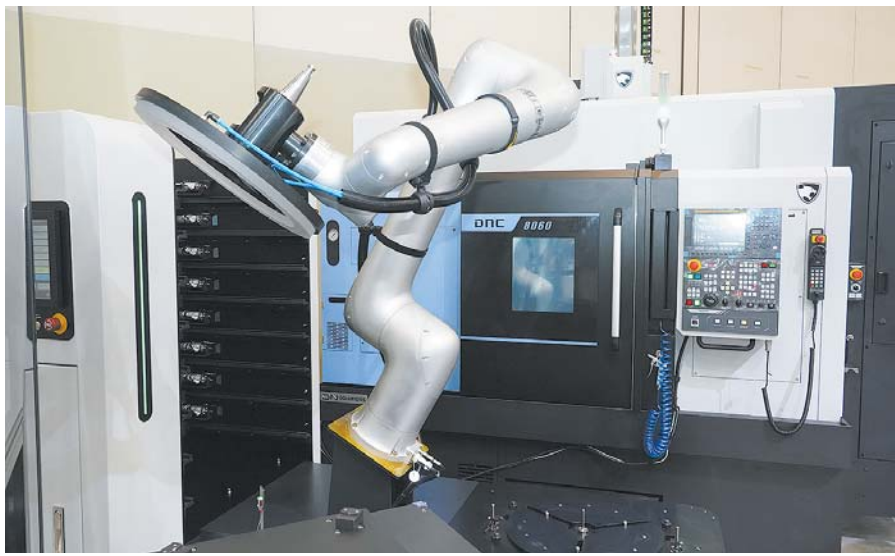
김 대표는 “벡스코에서 행사를 한다는 것 자체는 회사 차원에서도 많은 비용과 인력이 투입되는 큰 도전이었지만 지금은 5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행사가 됐다”고 말했다.

DN솔루션즈는 글로벌 3위, 국내 1위의 공작기계 업체로 66개국에 판매망을 갖추고 있으며 450개가 넘는 제품 라인업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기술 트렌드를 확인하기 위해 행사 때마다 5000명 이상이 방문한다.

■‘금속 적층’ 신기종 공개

DN솔루션즈는 이번 딥프 전시회를 통해 적층 제조가 가능한 신기종을 공개하고 적층 제조 시장 진출도 발표했다. 적층 제조는 3차원 CAD 모델을 기반으로 재료를 한 층씩 쌓아 제품을 만드는 제조 방식이다. 전통적인 공작기계의 깎아내는 제작 방식과 반대 개념의 방식인 셈이다.

김 대표는 “적층 방식은 가공 후 조립



과정을 단축하고, 절삭으로 구현이 불가능한 형상을 만들 수 있어 무한한 혁신 가능성이 있다”며 “2030년까지 적층 제조와 절삭 가공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DN솔루션즈 장비 부품을 기존 방식 아닌 적층 방식으로 제작하니 약 20%의 성능 개선 효과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에 DN솔루션즈가 공개한 DLX 시리즈는 금속 레이저 파우더 베드 퓨전 기술을 사용하는 제품으로, 이 기술은 금속 적층 제조 방식 중 가장 발전된 기술이자 활용도가 높은 공법으로 꼽힌다.

다. 현재 금속 적층 시장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다.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

딥프 2025의 전시 공간의 테마는 ‘공작기계 가공 공정 전반을 위한 오토메이선 플랫폼’이다. 자동화 솔루션은 육중한 금속 자재를 공작기계로 자동 공급하고, 완성된 제품을 다음 공정으로 자동 이동시키는 등 작업자의 개입을 최소화한다. 이러한 자동화 솔루션은 기계가 야간이나 휴일에도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DN솔루션즈는 5일까지 열리는 딥프 2025에서 자동화 장비(왼쪽)와 적층 제조가 가능하도록 신기술이 도입된 장비를 선보인다. DN솔루션즈 제공

김 대표는 “DN솔루션즈의 소프트웨어 기술은 단순 공작기계 자체를 스마트 머신으로 진화시키고, 자동화 솔루션 및 전체 장비를 ‘스마트 팩토리’로 진화시킨다”며 “CUFOS는 스마트폰과 같은 사용자 친화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갖춘 직관적인 공작기계 제어 시스템과 ‘EZW ORK’ 소프트웨어 패키지는 측정 및 보정 기능을 통해 가공 정밀도를 크게 향상시킨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전체 장비군의 상태를 파악 통제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해 제품의 유지 보수에서도 유리하다.

장병진 기자 joyful@busan.com

KIMES 2025 부산공동관 첫선

국내 최대 의료기기 전시회
부산 기업 150건 수출 상담

한국 최대의 의료기기 및 병원 설비 전문 전시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에 처음으로 ‘부산공동관’이 운영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약 12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부산 기업들이 글로벌 메디컬 시장에 문을 두드렸다.

부산시와 부산테크노파크는 지난 달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KIMES 2025)에 참가해 ‘부산공동관’을 처음으로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총 8개 기업이 참여해 전시회 기간 동안 약 150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고 약 12만 달러 계약을 성사시켰다.

두양메디칼은 시트 상하 리프트 기능이 있는 다목적 이동병가를 선보였다. 미가메디칼은 국내 최초 비늘 없는 주사기인 ‘COMFORT-IN’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 홍콩, 싱가포르, 일본 등지에 3만 달러 이상을 거래하며, 상담액은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 신화의료기는 물리치료기 분야에 다양한 의료기를 선보이며 현장에 17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추진했으며, 신화메디스는 다기능 힐링 캡슐기와 척추치료기인 ‘오로힐링베드’로 1억 원의 현장 판매 실적을 올렸다. 광원메디텍은 버튼을 터치하면 자동으로 계단이 만들어져 보행에 도움을 주는 보행훈련기인 스마트 스텝으로 현장에서 약 5000만 원의 실적을 올렸다. 현재 태국, 홍콩, 몽골 바이어들과 계약 및 MOU 논의 중이다.

위니즈는 보행 재활 기구인 ‘Walkmate’를 선보이며 베트남, 태국, 루마니아 등 8개 국가와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주)제이테스인더스트리는 레이저 의료기기 전문 제조업체로, 고품질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료기기 ‘Heal Care’를 전시했다. 전시회 현장에서 약 1100만 원 규모의 현장 판매 실적을 달성했다.

박해랑 기자 rang@

부산EDC그린데이터센터, KT와 손잡았다

AI 데이터센터 구축 MOU
국내 최대 규모 사업 가속도
“디지털 생태계 조성 기대”

(주)부산에코델타그린데이터센터PFV(이하 그린데이터센터)와 KT가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하며 부산 최초로 시도되는 데이터센터 사업이 가속도를 내게 됐다. 업계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로 조성되는 데이터센터 사업에 국내 최고 수준의 기술과 인프라를 가진 KT가 참여해 큰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린데이터센터는 지난 달 28일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EDC) 내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KT와 체결하고, 국내 최대 규모 AI 데이터센터의 본격적인 공동 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데이터센터 설계 및 구축을 위한 기술적·행정적 협력, 글로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CSP) 유치에 위한 공동 전략 수립, 입주 기업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에코델타시티 내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공동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KT는 국내 최고 수준의 데이터센터 설계·운영 경험과 인프라 구축 역량을 바탕으로 기술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CSP 유치를 위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KT가 그린데이터센터와 손잡은 배경에는 지난 2월 21일 그린데이터센터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성공적으로 통과해 180MW라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전력 공급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40MW 이상이면 하이퍼

스케일 데이터센터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국내 최대급인 세종시 네이버 데이터센터도 80MW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데이터센터 거점을 모색해 온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 기업들이 그린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산이 아시아 주요 해저케이블 육상 접속지로서 풍부한 해저케이블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어 글로벌 데이터 흐름의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크다. 그린데이터센터와 KT는 이러한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부산에코델타시티그린데이터센터를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KT 노형래 본부장은 “이번 협력을 계기로 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에 최첨단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시대 dp 폭발적 성장이 기대되는 디지털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그린데이터센터는 지난 달 28일 부산 에코델타시티 내에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KT와 체결했다. 그린데이터센터 제공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한국형 그린 데이터센터 모델 구축에도 적극 기여하기로 했다.

그린데이터센터 최대주주인 대성문채창호 대표는 “KT와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AI 데이터센터의 국내 대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한편 데이터센터와 연계된 산업 부문도 공동개발해 부산이 미래성장 고부가 DC 핵심 기술 개발

의 거점이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에코델타그린데이터센터 PFV는 올해 건축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6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2028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이며 총사업비 2조 5000억 원으로, IBK증권과 기업은행이 공동 투자한다. 해당 사업은 해저케이블, 전문 인력, 풍부한 전력 등 여러 장점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장병진 기자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펫플스토리

부산일보 파트너스

사람과 반려동물을 이어주고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부산일보 펫플스토리에서 만나보세요.
반려동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 펫부산

▶ 펫플스토리

국내 최대 규모

크마음 동물메디컬센터

8천건의 풍부한 외과수술 실적
수준높은 외과수술 전문

부산경남 최초, 노령환자를 위한
크마음재활안방센터

CT·MRI 영상센터

오시는길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357번길 17, 4, 5, 6, 7, 8F
051-632-7580

모든 내원아기를 '우리아가'라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진료하는 평생주치의!

다송동물메디컬센터 & 다송고양이메디컬센터

1층 강아지전문병원 2층 고양이전문병원 3층 고양이전문병원 지상주차장&발렛

국내최초 isfm 고양이진료인증병원, 개원 이래 4만건 이상 수술 임상사례 경험

수술(정형, 골절, 종양 등) / 심장 / 치과 / 재활 / 고양이 전문

평일 오후 10시까지 야간진료 / 공휴일진료 / 일요일진료 진행

다송동물메디컬센터 051.632.7580
다송고양이메디컬센터 051.636.7582

오시는길 | 부산 남구 문현동 403-7 (문현역 2번출구)

정관아산 동물의료센터

슬개골탈구·십자인대 집중치료

051)727-7522

펫로스 케어

아름다운 이별은 소중한 만남의 완성!

문의: 1522-2253 · 카카오톡: 펫로스케어

· 365일 24시간 운영 · 전 지역 픽업 서비스

부산경남 대표 반려동물 장례식장 펫로스케어

가입문의 | 부산일보 디지털사업부 (051)461-4312 digital@busan.com